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9, No.9, September 30 (2023), pp.337-349
http://dx.doi.org/10.47116/apjcri.2023.09.26

The relationship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Desire for Self-sufficiency of Middle·old-aged Self-reliance Project Participa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orker Support as Perceived by Participants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와 자활의욕 간의 관계: 참여자가 인식한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Mi-Jung Kim[1], Yun-Jeong Kim[2]

김미정[1], 김윤정[2]

[1] *Master, Dep. of the Elderly Welfare, Hanseo University, ROK, kmj7952@hanmail.net*
[2] *Professor, Dep. of Social Welfare, Hanseo University, ROK, twoyun21@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Yun-Jeong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orker support on the effects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desire for self-sufficiency targeting the middle/old-aged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cy program.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June-July 2022,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middle/old-aged people in their 40 or older who were currently participating in self-sufficiency program at the self-sufficiency centers in the whole nation. Total 321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Using the SPSS Win 24.0 version, this study conducted the reliabilit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the SPSS PROCESS macro 4.0 version (No.4 model), the mediating effects were analyzed. First, the middle/old-aged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cy program started participating in self-sufficiency program through the local government's request; there were lots of new participants; they were participating in self-sufficiency program for three years or more; a lot of them were participating in social service type; and most of them were the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econd, the achievement motivation, desire for self-sufficiency, and social worker support of middle/old-aged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cy program showed the high level higher than the median value. Third, in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orker support on the effects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desire for self-sufficiency of middle/old-aged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cy program,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orker support were verified. In other words, the desire for self-sufficiency of middle/old-aged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cy program is influenced by not only achievement motivation, but also social worker support.

Keywords: Participants in Self-sufficiency Program, Achievement Motivation, Desire for Self-Sufficiency, Social Worker Support, Mediating Effect

* 본 연구는 김미정(2022)의 석사학위논문(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Received: May 19, 2023; 1st Review Result: June 24, 2023; 2nd Review Result: July 28, 2023
Accepted: August 25, 2023

Copyright ⓒ 2023 KCTRS

요약: 본 연구는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전국의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2022년 6월과 7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321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Win 24.0 version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SPSS PROCESS macro 4.0 version(4번 모델)을 이용하여 매개 효과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는 지자체의 의뢰에 의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신규 참여자가 많았고, 3년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수급자였다. 둘째,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 자활의욕, 실무자 지지는 중앙값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다. 셋째,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은 자신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받지만 실무자 지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자활사업 참여자, 성취동기, 자활의욕, 실무자 지지, 매개 효과

1. 서론

노인인구의 증가가 가파른 가운데, 노인인구의 증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경제적 측면이다.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로 노동력 부족, 노인복지비 지출증가, 국가경쟁력 약화, 의료비 지출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는 사회적 측면이다.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노인빈곤과 노인세대의 소외현상 및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는 지역사회의 측면이다.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로 농촌지역 고령화 현상 악화, 일손 부족 및 지자체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의 기반에는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 개인과 국가 경쟁력 저하의 문제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1].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현 세대 노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미래 세대 노인이 될 중년층의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특히 현재 중년층의 노후의 경제적 준비도가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다음 세대 노인이 될 중년층의 노후 경제적 어려움도 예측할 수 있다. 노후준비도를 보면, 잘 준비된 가구는 8.9%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가구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가구는 54.2%로, 절반 이상의 노인가구에서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나마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5.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2].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노후 생활을 위해 상당히 부족한 가운데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비중이 큰 것은 현 세대 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노인이 빈곤층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빈곤계층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자활사업을 들 수 있다.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 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을 예방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3].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취동기가 중요하다.

 Copyright ⓒ 2023 KCTRS

성취동기는 인간의 전 생애를 걸쳐서 중요한 요인으로써 주로 후천적 학습이나 노력에 의해서 육성될 수 있다. 동기부여의 예측요인이 되며[4], 일을 성취해낼 수 있는 자신감[5]이기도 하다. 동기부여 관련 이론들은 근로연계복지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사업에서 참여자의 자활 수준 혹은 자활 성공은 참여자의 심리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활과 관련된 목표, 기대, 성취동기 부여, 보상, 자아 효능감 등 사회심리적인 요인들은 참여자의 자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Maslow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동기부여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다.”는 주장은 공공부조에서의 성취동기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6]. 생계급여의 수급과 생업자금융자, 자녀보육지원, 자녀학자금지원은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7], 생계비 지원은 자활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는 연구결과들은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자신의 근로를 통한 자활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근로연계를 하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자활의욕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간 이와 관련된 학문적 관심은 부족하였다. 그간 발표된 자활사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활사업 시행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제도분석연구[9-11],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제반 특성을 파악한 연구[12][13],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 등의 심리.사회적인 변화에 관한 연구[12][14][15], 자활서비스의 특성에 관한 연구[16-18], 자활사업 참여자 수의 변화, 자활프로그램 확대, 자활사업 전달체계 구축 등의 외형적 평가 중심[19][20] 등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었다.

한편, 실무자의 지지나 실무자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 등이 자활의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간관계 이론에서는 직장동료와 일을 할 때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적대적이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환경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고, 스스로를 인정하게 하며, 도와가며 즐거움 속에서 일을 하게 하는 동인이 됨으로써, 일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켜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즉, 직장동료 뿐만 아니라 실무자나 리더가 제시하는 비전과 열정은 동료 및 부하들에게 희망과 즐거움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 동인으로 작용하여 목표달성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6].

이처럼 자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직원의 역량, 전문성 및 적극성 등의 인적요인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자활센터 실무자의 리더십이 강할수록[21], 실무자들과 참여자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21], 실무자의 심리적 지원과 도움 정도가 높을수록[6]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무자들의 인적자본, 즉, 자활사업 경력이나,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기술교육과 상담 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자활사업의 효과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2][23]. 실무자의 지지는 근로환경보다 더 영향력 있는 변수로써, 근로환경은 자활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실무자의 지지와 도움은 자활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4]도 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의 능력은 어떠한 요인보다 자활사업 효과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16][23]는 점에서 자활센터 실무자의 지지는 자활성과 즉,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의 향상 및 탈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취동기, 자활의욕 및 실무자 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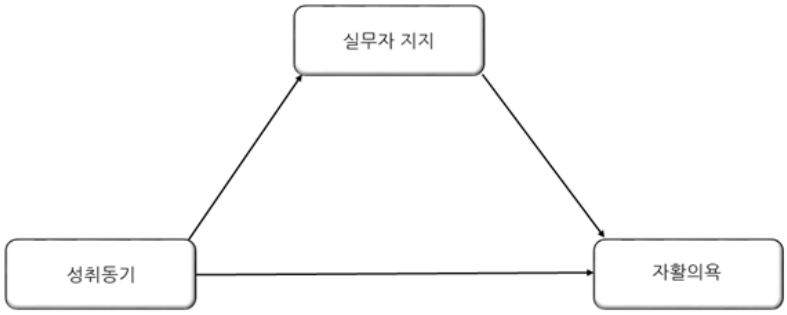
Copyright ⓒ 2023 KCTRS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의 지지가 매개역할을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실무자의 전문성 여부 또는 참여자와의 관계 등 단편적으로 연구되어져 왔을 뿐, 참여자들이 인식한 실무자의 지지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취동기와 자활의욕 간의 관련성 및 그러한 관련성에서의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활사업 참여특성 및 참여자의 성취동기, 자활의욕, 실무자지지 수준은 어떠 한가? 둘째, 자활사업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자활사업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 지지는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중·고령자 대상으로 하여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 지지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40세 이상의 중·고령자이다. 중.고령자를 40세 이상으로 선정한 것은 신명희 등[25]에 근거하였다.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전국의 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에게 설문조사를 부탁하였다. 자활센터 당 대략 20부에서 30부 정도의 설문조사를 의뢰하였고, 설문조사 후에 연구자가 직접 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먼 지역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완성된 설문지를 받았다. 설문지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설문대상자와 설문조사에 도움을 준 사회복지사에게 선물을 준비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6월과 7월에 걸쳐서 하였고, 회수된 329부 가운데 중·고령자 연령범위를 벗어나는 5부와 무응답이 많은 3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21부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성취동기

Copyright ⓒ 2023 KCTRS

Jackson[26]의 성취동기 척도를 수정.보완한 김승의[8]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3개의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높은 것이다. 12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647로 다소 낮은 편이었다.

2.3.2 자활의욕

Mossholder[27]의 자활의욕 척도를 수정·보완한 김승의[8]의 측정도구 사용하였다. 총 11개의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활의욕이 높은 것이다. 11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884이다.

2.3.3 실무자 지지

실무자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인 실무자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엄태영[28]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2개의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실무자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높게 받는 것을 의미한다. 12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957이다.

2.3.4 자활사업 참여 특성

자활사업 참여특성은 참여경로, 참여형태, 참여기간, 참여유형, 수급여부로 측정했다.

2.4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가구형태, 건강상태, 경제상태)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성이 194명(60.4%)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았고, 평균 연령도 54.14세였다. 중졸 이하는 96명(30.4%), 고졸은 147명(46.5%), 대졸이상은 73명(23.1%)로 고졸자가 가장 많았다. 미혼이 82명(25.6%), 기혼이 81명(25.3%), 이혼/사별 등이 157명(49.1%)로, 이혼이나 사별 등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1인 가구가 140명(43.9%)로 가장 많았고, 부부가구는 63명(19.7%), 한부모가구는 80명(25.1%), 기타가구는 36명(11.3%)이었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48.4%로 가장 많았다. 경제상태는 ‘나쁘다’ 라고 응답한 경우가 165명(51.4%)로 가장 많았고, 5점 만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2.42점으로 중앙값인 3점과 비교해 보면, 자신의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낮은 편이었다.

2.5 분석방법

SPSS Win 24.0 version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빈도분석, t-test와 ONEWAY ANOVA, 상관관계를 적용하였고, SPSS PROCESS macro 4.1 version(4번모델)을 이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하였다. 아래의 연구문제 분석을 하기 전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통한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의 일반적 경향

Copyright ⓒ 2023 KCTRS

3.1.1 자활사업참여특성

자활사업 참여경로를 살펴보면, 본인이 스스로 요청해서 참여한 경우가 96명(30.2%)이고, 지자체 의뢰에 의한 경우가 110명(34.6%)이며, 본 기관 및 타기관의 의로, 그리고 기타에 의한 경우가 112명(35.2%)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형태를 살펴보면 신규참여인 경우가 204명(65.4%), 재참여인 경우가 108명(34.6%), 신규참여자가 2배가량이었다. 자활 참여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인 경우가 76명(23.7%), 1년 이상~3년 미만인 경우가 111명(34.6%), 3년 이상인 경우가 134명(41.7%)로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 1년 정도의 단기간 보다는 3년 이상의 장기간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 참여유형을 살펴보면, 게이트웨이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17명(5.3%), 인턴도우미형에 참여하는 경우가 10명(3.1%),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는 경우가 143명(44.5%), 시장진입형에 참여하는 경우가 94명(29.3%),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57명(17.8%), 연구대상자 중 절반 가량이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급여부를 살펴보면, 수급자인 경우가 223명(69.5%), 자활특례자인 경우가 32명(10.0%), 차상위계층 등인 경우가 66명(20.6%)로 수급자가 대다수였다.

3.1.2 성취동기, 자활의욕, 실무자 지지의 일반적 수준

독립변수인 성취동기는 5점 만점에 평균 3.30점(표준편차 .485)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자활의욕은 5점 만점에 평균 3.64점(표준편차 .610)으로 중간 수준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실무자 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53점(표준편차 .768)로 중간 수준의 이상이었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성취동기가 높고, 자활의욕도 높으며, 실무자로부터 다양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 분석을 하기 전 변수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의 기준은 절댓값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는 절댓값 8 또는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분포로 볼 수 있다[29]. 또한, 왜도는 .091에서 .483으로, 절댓값 3을 초과하지 않았고, 첨도는 .657에서 2.381로[표 1], 8 또는 10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분포 기준 내에 있어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분석을 위한 기준이 충족되었다.

[표 1] 주요 변수의 일반적 수준

[Table 1] General Levels of Major Variables

		M(S.D.)		왜도		첨도	
		M	S.D.	통계량	표준오차	통계량	표준오차
독립변수	성취동기	3.30	.485	.091	.136	2.381	.271
종속변수	자활의욕	3.64	.610	-.284	.136	.657	.271
매개변수	실무자 지지	3.53	.768	-.483	.136	.842	.271

3.1.3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전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2].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실무자 지지가 높고($r=.307$, $p<.001$), 자활의욕이 높았다($r=.620$, $p<.001$). 또한

Copyright ⓒ 2023 KCTRS

실무자 지지가 높을수록 자활의욕이 높았다(r=.461, p<.001). 또한 상관계수인 r 계수를 보면 .307에서 .620까지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된다.

[표 2]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성취동기	실무자 지지	자활의욕
성취동기	1		
실무자 지지	.307***	1	
자활의욕	.620***	.461***	1

***p<.001

3.2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표 3].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는 자활의욕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fect=.780, p<.001). 즉,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자활의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

[Table 3]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on Desire for Self-sufficiency

종속 변수: 자활의욕						
독립 변수	Coeffect	SE	t값	p	LLCI	ULCI
상수	1.065	.184	5.781	.000	.702	1.427
성취동기	.780	.055	14.120	.000	.671	.889
R^2 =.385, F=199.382, p=.000						

3.3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와 자활의욕 간의 관계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표 4], [그림 2]. 분석결과, 경로 별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였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는 실무자 지지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Coeffect=.486, p<.001), 성취동기는 자활의욕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Coeffect=.237, p<.001).

또한,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력이 실무자 지지가 투입한 모델에서.780[표 3]에서 .665[표 4], [그림 2]로 감소됨에 따라 실무자 지지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와 자활의욕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활사업참여자의 성취동기는 실무자 지지를 경유하여 자활의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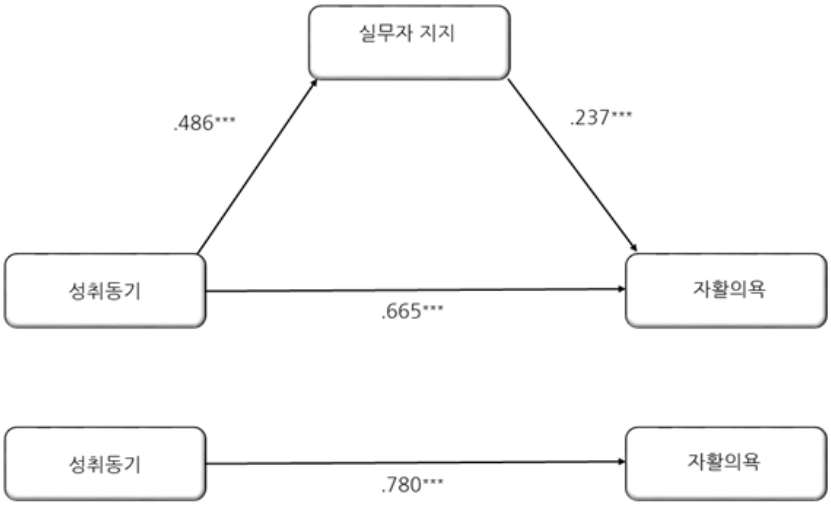
[표 4]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ocial Worker Support

Copyright ⓒ 2023 KCTRS

종속 변수: 실무자 지지						
독립 변수	Coeffect	SE	t값	p	LLCI*	ULCI**
상수	1.927	.282	6.843	.000	1.373	2.481
성취동기	.486	.084	5.754	.000	.320	.652
R^2 =.094, F=33.106, p=.000						
종속 변수: 자활의욕						
독립 변수	Coeffect	SE	t값	p	LLCI	ULCI
상수	.607	.184	3.299	.001	.245	.970
성취동기	.665	.054	12.271	.000	.558	.771
실무자 지지	.237	.034	6.946	.000	.170	.305
R^2 =.466, F=138.579, p=.000						

*LLCI=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 값
**ULCI=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 값



***p<.001

[그림 2]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

[Fig. 2] Mediating Effect of Social Worker Support

다음으로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은 95.0%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 실무자 지지→ 자활의욕 간 경로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 값 .115는 부트스트랩 하한 값 .059와 상한 값 .185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무자 지지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와 자활의욕 간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표 5]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 값 검증

[Table 5]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Value of Social Worker Support

		Effect	BootSE	BootLLCI*	BootULCI**
총효과		.780	.055	.671	.889
직접효과		.665	.054	.558	.771
간접효과	성취동기 → 실무자 지지→ 자활의욕	.115	.032	.059	.185

*LLCI=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 값

Copyright ⓒ 2023 KCTRS

**ULCI=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 값

4. 논의 및 결론

4.1 요약 및 논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는 여성, 50대, 고졸, 이혼/사별 등, 1인 가구이며 건강상태와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지자체가 의뢰를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신규 참여자가 많았고, 3년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수급자였다. 또한,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 자활의욕, 실무자 지지는 중앙값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다. 먼저 성취동기를 보면, 권민숙[6]의 연구에서는 성취동기가 5점 만점 1.78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의 성취동기는 3.30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13점 만점에 8.37점이였던 엄태영[2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성취동기는 연구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활의욕은 권민숙[6]의 연구에서는 3.68점, 엄태영[23]의 연구에서는 3.79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실무자 지지도 권민숙[6]의 연구에서 3.60점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둘째,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는 자활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자활의욕이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에 얻어질 성취 만족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과업에 열중한다는 박성수[30]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셋째,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가 자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실무자 지지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은 성취동기에 영향을 받지만, 실무자 지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자의 지지가 자활의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4][31-33]와 일맥상통한다. Dollimger[31]는 직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강남식 외 [32]는 실무자의 깊은 배려나 격려가 높을수록 자활의욕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천남일 [24]은 실무자의 심리적인 지원과 도움 정도가 높을수록 자활의욕은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권민숙, 윤영석, 김근식[33] 역시 실무자와의 관계는 자활의욕을 높인다고 하였다.

4.2 자활의욕 향상 방안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근거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 향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대상자의 자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활사업의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이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써,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예방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하는데 자활사업의 목적이 있다[3].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Copyright ⓒ 2023 KCTRS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자활사업참여자의 참여자의 욕구, 적성, 특기보단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근로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에의 참여가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성취동기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본 연구 대상자의 성취동기가 3.30점이라는 점은 성취동기를 좀 더 향상시켜 근로연계복지라는 자활사업의 본연의 목적[28]을 달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려면 참여자들의 욕구와 적성, 과거 직업이력 등이 반영된 다양한 자활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함으로써 참여자의 자활의욕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취동기이론에서는 성취동기를 외면적인 성공이나 보상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내적으로 성취하려는 욕구를 의미한다[6]. 즉, 성취동기는 '스스로 높은 기준에 의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성취결과나 외적 보상과 관계없이 어려운 과업 그 자체를 해결하려는 성향' 으로써 [34],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은 성취동기가 낮은 사람에 비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따라서 성취동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참여에서의 책임감,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서적 자활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 자활은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립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을 얻게 되고 생활태도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달리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28]. 여기서 자립관련 요소들은 자립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심리적 측면으로서의 자신감, 자활사업에서 요구되는 기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 자립에 필요한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자신감, 자활사업이 자립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 등으로 볼 수 있다. 정서적 자활은 경제적 자활로 가기 위한 이전 단계로 볼 수 있으나, 자활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35]. 따라서 자활사업에 있어서 자활참여자들의 욕구, 적성, 과거 직업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의 개발과 더불어 정서적 자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성취동기를 높인다면 자활의욕, 자활의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두 번째 방안으로는 바로 실무자 지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에 의해 전적으로 기획되고 추진된다. 또한, 실무자에게는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판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적절한 자활사업을 연계하며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전문적인 행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기능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자활사업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실무자의 전문적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통해서 자활사업참여자의 자활의욕을 향상시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무자가 중재와 수립능력, 옹호와 서비스 통합능력 및 업무능력을 갖추도록 실무자에게 정규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고충상담을 통해 번 아웃이 오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도 있다. 자활센터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도입하여 참여자의 불만을 수렴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관리운영과 자활사업 실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자활참여자를 독려하고 지지하고 무엇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자 관리를 통한 실무자 지지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4.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Copyright ⓒ 2023 KCTRS

본인의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더불어 실무자가 적극적인 지지를 제공할 필요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근로 능력과 자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활사업의 효과성과 역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어 왔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단시일 내에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 지나친 탈수급, 탈빈곤에 치중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자활서비스 질 향상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자립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실무자의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 센터의 실무자가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 설문에 응답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조사방법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러한 조사방법으로 인해 실무자 지지 점수가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거나 자활사업 참여자와 일면식이 없는 연구자가 직접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References

[1] J. D. Yoon, B. K. Lee, S. Y. Kim, The Study of Senior Population Growth and Distribution of Sport a Physical Director, The Korean Journal of Sport, (2017), Vol.15, No.2, pp.479-485.

[2]http://www.inclusivekorea.go.kr/boardView.do;jsessionid=ZgOmVC1rdyk09AuMYOOMUXLv.node10?boardID=72734&boardSeq=89317&lev=0&searchType=&searchWord=&curPage=1, Sept 29 (2021)

[3]https://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75050, Feb 20 (2023)

[4] J. S. Eccles, A. Wigfield, U. Schiefele, Motivation to Succe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1998)

[5] S. S. Park, C. K. Kim, J. C. Lee, Research on Development Plans for Vocational and Career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1987)

[6] M. S. Kwon, A Study on Factors Which Influence the Welfare-to-Work Program Participants Volition of Self-Support, Seonam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14)

[7] J. S. Ahn,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Degree of Economic Self-Sufficiency of Low-Income Female Householders, Yonsei University, Master Thesis, (2001)

[8] S. U. Kim, The Self-Reliance Project Participants Desire for Self-Reliance and Affects Employment and Start-up Related Activities Influencing Factors, Kyongg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7)

[9] I. H. Gu, Work Incentive Effec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Program and New Policy Proposals: Focusing o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005), Vol.21, No.1, pp.1-29.
Available from: https://kmbase.medric.or.kr/KMID/1124020050210010001

[10] D. W. Seo, S. H. Lee, Y. H. Kim, D. M. Noh, Y. P. Lee, T. Y. Hwang, S. I. Kang, A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rograms to Encourage Work Motivation of Recipients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Focusing on Self-Reliance Project Rehabilitation Program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
Available from: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411

[11] D. M. Sin, Evaluation and Development Plan for Self-Reliance Projects, Social Science Journal, (2003), Vol.20, pp.191-212.
Available from: https://preview.kstudy.com/W_files/ksi1/01304153_pv.pdf

Copyright ⓒ 2023 KCTRS

[12] N. S. Kang, E. J. Shin, J. H. Sung, A Study on the Reality and Desire for Self-Reliance of Female Conditional Recipients, Social Welfare Research, (2002), Vol.19, pp.23-50.
Available from: https://preview.kstudy.com/W_files/kiss6/47400176_pv.pdf

[13] T. G. Yoo, G. H. Kim,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Financial Suffering of the Households Participating the Self-Support Program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Area,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003), Vol.19, No.1, pp.105-133.
Available from: https://kmbase.medric.or.kr/KMID/1124020030190010105

[14] H. H. Lee, A Study of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Peculiarities of the Self-Sufficiency Promotion Agencies on the Work Orientations of Their Staff Members,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2005), Vol.7, No.3, pp.1-28.
Available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224377

[15] M. H. Kim, J. K. Jeong, An Empirical Study on the Changing Factor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f Korea,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003), Vol.19, No.1, pp.1-21.
Available from: https://kmbase.medric.or.kr/KMID/1124020030190010001

[16] S. Kwon, A study on the Escape from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for Conditional Recipients of Non-Employed Subjects: Focusing on the Determining Factors for Escaping from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and the Verification of the Logic of the Step-By-Step Development Strategy of Self-Reliance Projects, Social Welfare Policy, (2005), Vol.22, pp.179-205.
Available from: https://preview.kstudy.com/W_files/ftp43/0v400314_pv.pdf

[17] K. S. Kim, C. H. Kang, A Study of Labor Entry of Conditional Welfare Recipients: An Exploration of the Predicto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03), Vol.52, pp.5-32.
Available from: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50025648512

[18] R. L. Hawkins, How Low- Income Single Mothers Leave Welfare You Economic Self-Sufficiency: the Role of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Human Capital and Social Capital, Brandeis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2)

[19] H. J. Le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ts Significance and Improvement Direction, Health and Welfare Forum, pp.41-50, (2003)
Available from: http://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4891/1/0896656.pdf

[20] J. G. Byun, H. G. Kang, H. J. Lee, Y. K. Lee, S. H. Kim, J. H. Shim, A Study on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hrough Job Analysis of Public and Private Community Welfare Professional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0)
Available from: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296?mode=full

[21] S. R. Lee, J. M. Jin,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Antipoverty Policy in Local Community: Focusing on the Self-Support System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03), Vol.52, pp.241-272.
Available from: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40013853910

[22] Y. S. Kwon, J. S. Lee, The Effects of the Service Quality Provided by Staffs at Local Self-Sufficiency Centers on the Self-Sufficiency Performance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2011), No.36, pp.23-49.
Available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voisDetail?voisId=VOIS00118161

[23] T. Y. Eom,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Income of Self-Sufficiency Community Participants: Focused on the Self-Sufficiency Community in Seoul, Yonsei University, Master Thesis, (2004)

[24] N. I. Cheon,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Work Motivation of Self-Reliance Project Participants, Chodang University, Master Thesis, (2012)

[25] M. H. Shin, E. H. Seo, S. J. Song, E. K. Kim, Y. S. Won, W. K. Noh, J. M. Kim, S. Y. Kang, H. Y. Um, Development Psychology, Hakjisa, (2022)

[26] D. N. Jackson, Jackson Personality Research from Manual, God hen, NY: Research Psychologists Press, (1967)

[27] K. W. Mossholder, Effects of Externally Mediated Goal Setting on Intrinsic Motivation: A Laboratory Experi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980), Vol.65, No.2, pp, 202-210.
DOI: https://doi.org/10.1037/0021-9010.65.2.202

Copyright ⓒ 2023 KCTRS

[28] T. Y. Eom, A Study of Individual and Community Self-Sufficiency Center's Organizational Predictors on Participants Employment in Self-Sufficiency Program: Focused on the Paraprofessional Self-Sufficiency Program, Yonsei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2009)

[29] T. Kline,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Sage, (2005)

[30] S. S. Park, K. H. Min, The Effect of Taekwondo Players Training Goal Set-up Levels on Self-Esteem and Career Awareness Maturity, Journal of Martial Arts, (2012), Vol.6, No.1, pp.31-50.
Available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62182

[31] S. M. C. Dollinger, Identity style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95), Vol.29, No.4, pp.475-479.
DOI: https://doi.org/10.1006/jrpe.1995.1028

[32] N. S. Kang, E. J. Shin, J. H. Seong, A Study on the Reality and Desire for Self-Reliance of Female Conditional Recipients, Social Welfare Research, (2002), Vol.19, pp.23-50.
Available from: https://preview.kstudy.com/W_files/kiss6/47400176_pv.pdf

[33] M. S. Kwon, Y. S. Yoon, G. S. Kim, A Study on Factors Which Influence the Welfare-to-Work Program Participants Volition of Self-Suppor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012), Vol.26, No.3, pp.435-454.
DOI: https://doi.org/10.18398/kjlgas.2012.26.3.435

[34] W. S. Jeong, The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to the Interurban Disparity in the Age of Local Government, Korean Society of Local Autonomy, (2001), Vol.13, No.1, pp.141-160.
Available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277753

[35] W. O. Jung, J. G. Kim, Subjective Evaluation of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on the Self-Support Programs and the Future Prospect on Economic Independenc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005), No.28, pp.35-67.
Available from: https://preview.kstudy.com/W_files/kiss6/47400267_pv.pdf

Copyright ⓒ 2023 KCTRS